

목장교회 나눔지

[6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얼음 깨기

나무의 비밀

거센 바람이 부는 높은 산 위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들이 모진 풍파를 견디는 비결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땅 위에서는 각자 독립된 나무처럼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히고설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무가 수분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통해 나누어주고, 강풍이 불 때는 서로의 뿌리를 꼭 붙잡아주어 함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네트워크'입니다. 누군가 지쳐 쓰러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해 주는 성도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눔]

1. 목원과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교회행사

6월

7,14일	풍습초 이끄미 세미나 5기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5-17일	어와나 영어성경학교 EBS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 예비학교 개강
26-28일	더원공동체 여름수련회

7월

4-5일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
5일	상반기 목장모임 방학
5-6일	굿월센터 유학생 수련회
11-12일	더조이/유아부/유치부/초등3부 여름성경학교
24-25일	초등1부 여름성경학교
24-26일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27-31일	어와나 티앤티캠프

경배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선교

[정동준 선교사]

우간다

1. 우간다 대선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파오모 마을 우물 행사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 2026년 RTC 1학기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소식

1. 굿월센터

선교에 진심 진실하게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가 유학생 선교사역을 좀 더 공적으로 재정적으로 원활하고 투명하게 사역하기 위해 '사단법인 굿월센터'로 허가를 받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신천지 및 이단주의

교회 안에 신천지와 이단에 주의 당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교회에는 비밀로 하지는 모임이나 성경공부는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외부의 성경공부나 선교단체 훈련 시에는 교회와 소통하여 이단 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 큰 울림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 존 스토틀 -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으로 알려져 독립적으로 묵상 되곤 하지만, 사실 이는 12장과 14장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다양한 은사(방언, 예언 등)를 개인의 만족과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오용하여 심각한 예배 안의 다툼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 논쟁의 결론을 내리며, 은사를 조화롭게 감당하게 하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길'로써 사랑을 제시합니다.

1.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소음에 불과하다.

1세기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방 종교(우상 숭배) 문화에는 제의 중 극도 마음에 몰입하여 '무아지경(황홀경)'에 빠지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이들은 신과 직접 대화한다고 여겨졌는데, 이러한 문화적 정서가 교회 안의 '방언 은사'와 결합했습니다. 방언을 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이라 부르며 깊은 영적 우월감에 도취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소외감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찬란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팡파리'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고린도의 특산물이었던 구리는 로마 시대 극장에서 소리를 증폭하는 메가폰(나팔)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즉, 사랑 없는 방언은 본질 없이 소리만 뚝뚝거리는 거대한 소음이자,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꼴불견'에 불과하다는 일침입니다.

[나눔] 혹시 나에게 주신 직분, 달란트(물질, 봉사 능력 등)를 행하면서 사랑이 결여되어 도리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2. 사랑은 은사의 역기능을 치유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얼마나 탁월하게 활용했는지, 그것으로 얼마나 거대한 성과와 열매를 맺었는지 그 결과물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예배 중 질서 없이 행해지는 방언을 제한하고, 공동체 전체에 유익과 깨달음을 주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을 세울 때 세상의 이력, 학벌, 사회적 지위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적 은사만을 보고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탁월해도 그것으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 속에서 성령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며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를 세워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됩니다.

[나눔] 교회 지도자나 일꾼을 세울 때 세상적인 조건(스펙, 지위)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보다 '사랑의 성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서로를 향해 어떤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3. 은사는 유한하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성격을 '어린아이'와 '희미한 거울'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지역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투명하지 않고 구리를 닦아 만든 것이라 사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방언, 예언, 지식 등의 수많은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신비를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는 희미한 도구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제한적인 은사들은 그 임무를 다하고 사라지게(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날에는 더 이상 방언도, 예언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눔] 유한하고 사라질 이 땅의 성과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남기기 위해 오늘 내가 더 집중해야 할 영적 어린아이의 일(버려야 할 집착)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고린도전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 / 고린도전서 13장 1~13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은사의 올바른 사용	주신 직분과 은사, 달란트를 내 만족이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	세상의 스펙이나 외적인 지위 혹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소서.
	사랑의 계명을 완성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